

老人福祉施設에 대한 大學生의 意識과 關聯要因

좌운택* · 남철현** · 박천만***

- * 제주시 동인당 한의원
- ** 경산대학교 보건대학원
- *** 계명대학교 공중보건학과

An Awareness of Welfare Facility for the Elderly and It's Related Factors of College Students

Yooun Teak Jowa* · Chul Hyun Nam** · Chun Man Park***

- * *Dongin Dang Oriental Medical Hospital*
- ** *School of Public Health, Kyungsan University*
- *** *Dept. of Public Health, Keimyung University*

ABSTRACT

For the newly approach of policy with the old aged era at hand, the result which examines the 1,200 students attending professional colleges and upward in three small-to-medium sized cities, for two months, from October 1, 1996 to November 30, in order to know the change of consciousness of the growing modern young intellectual age group is as follows.

1. The objects of survey consist of 72.1% of women, 40.4% of 20 to 21 age, 49.1% of atheists, and people from big cities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 occupy equally 40.2%. Concerning the long-termed residents, 49% of them dwell in big cities. In case of the parents' age is more than 55, 31.5% in fathers, and 10.9% in mothers.
2. The types of housing in which they desire to reside in their getting older are : 72.8% of them hope to live in individual houses, 16.6% in apartments or villas, and 3.4%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Out of respondents, compared with other groups, man rather than woman, those who are 20 to 21 age group and from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and have over 7 family members and live with their parents have a higher preference for independent houses.
3. The districts in which they hope to live when they are old are : 41.6% of them, with the highest percent, hope to live in farming villages, the older they are, the more they hope to live in agricultural district, and women of 21 years and upward hope to live in big cities.

On the other hand, the preferable degree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higher each in people who are 24 years and upward, buddhists, self-boarding students, and the more poorly they are off, the higher the percent is.

4. The types of preferabl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re : 58.2% of them think silver towns desirable, 28.4% think the charged (or free) elderly welfare facilities. Compared with other groups, the percentage which prefer silver towns is higher in women, people from big cities, residents of main family, long-termed city residents, people with higher income, people having grandparents alive, and people who had experience of taking lectures on hygienics or social welfare.
5. 50.3% of the respondents insist that provision of living expenses against old age should be insured by social security system, and 42.8% by the elderly themselves. The percentage of the former shows higher in people of 21 years and upward, women, residents of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christians, people in more needy circumstances and people who have experience of using a medical institution.
6. Compared with other nations, 54.5% of the respondents have an opinion that elderly welfare and welfare work in Korea stays in insufficient level and most of them are women, people from farming village, residents of head family, people having younger parents and people being worse health condition, and they have a more positive attitude about the elderly welfare work.
7. 92.3%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a national budget for the elderly welfare is scarce, and the percentage is higher in people who are older, residents of big cities, people in lower living condition and people in worse health condition.
8. 35.2%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proper cost of their old age must be over 220million. The more a family's total income is, the higher the percentage is.
9.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preference of silver towns are sex($p < 0.01$), the type of the present residence($p < 0.05$), and a family's total income($p < 0.05$).
10. From the survey result of the above, we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for the sake of welfare of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government authorities and parties concerned must exert their utmost for the elderly welfare by increasing a budget of it and establishing a number of facilities of the elderly welfare and silver towns located in fresh and comfortable villages. In addition, they have to set up a course of hygienics in all the colleges and instruct the contexts on hygienic welfare as well.

I. 서 론

최근 삶의 질의 세계화가 우리나라에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은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의 정비 및 개선이라는 대책을 서둘러 강구하고 있다.

선진국은 노인복지 문제가 정책 결정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그 대책도 거의 완비되어 소득, 의료, 취업 등의 기초적 노후 보장을 비롯하여 주거 및 사회참여에 이르는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하면서 노후의 보람차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있다(김수춘 등, 1995).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노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자각년령은 남녀 모두 60~64세(남자 44.9%, 여자 52%)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회갑이 지나면 노인이라는 전통적인 한국인의 노인 개념이 뿌리깊게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회갑도 만 60세로 하고 있어 이때부터 노년기에 접어들었다고 사회적으로도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김중서등, 1982; 김진열, 1990; 장인협, 1987; 하상락 1972).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1년의 7%에서 2023에는 14%로 배로 증가 될 것으로 추계 되어 우리나라의 인구 노령화는 그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될 전망이다(남철현 등 1996). 일반적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7%에 도달 할 때를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라 하고, 14%에 도달 할 때를 노령화된 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 이처럼 노령화 시대에서 노령화된 사회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0년 그리고 일본이 25년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22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변용찬, 1997).

노령화가 이루어지면 전반적인 노인복지 수요가 증가되어 노인부양 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종래에는 노인부양은 가족이 담당해 왔으나 근래에는 도시화, 핵가족화로 전환되어 전통적인 대가족의 개념이 깨어지면서 노인이 혼자 살거나 노인 부부만 사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병율이 높아 치료비가 많고 치료 기간이 길어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진료비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여 의료보험의 재정 적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GNP 1만불을 넘어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제도는 선진국에 비하여 노인 수준이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지 않게 낮은 수준으로서 노인복지 대책 수준은 종합적, 구체적이어야 하나 구빈적단계인 보호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바람직한 노인복지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하나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김 등, 1995).

일반적으로 노인, 장애인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그를 뒷바침할 경제적 기반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시민 의식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수준은 한나라의 국가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은 생활보호 대상을 주로 하고 있으나 현재 노인인구에 제공되는 서비스나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며 사업의 내용도 시설 보호 대상을 주로 하고 있어 65세 이상 노인의 0.3%에 불과한 수용 노인을 위하여 중앙정부 노인복지 예산의 32.0%(1995)를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보건관련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만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문제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적인 분야 연구보다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여러가지 방면으로 노인보건문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정부정책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허정, 1984).

따라서 노령화 추세와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그리고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 및 다양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현대의 지식인 청년 연령층의 의식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논문은 지식인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복지와 시설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를 시행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대도시(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와 중소도시(김천시, 조치원시, 제주시)에 있는 전문대이상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99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이었다.

2. 조사방법

연구자가 교육받은 조사원과 같이 조사지역에 출장을 가서 각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교를 임의 선정하여 학과교수와 학생대표의 협조를 얻어서 준비된 설문지를 배부한 후 기록방법을 설명하고 自己記入式으로 기입케 한후 회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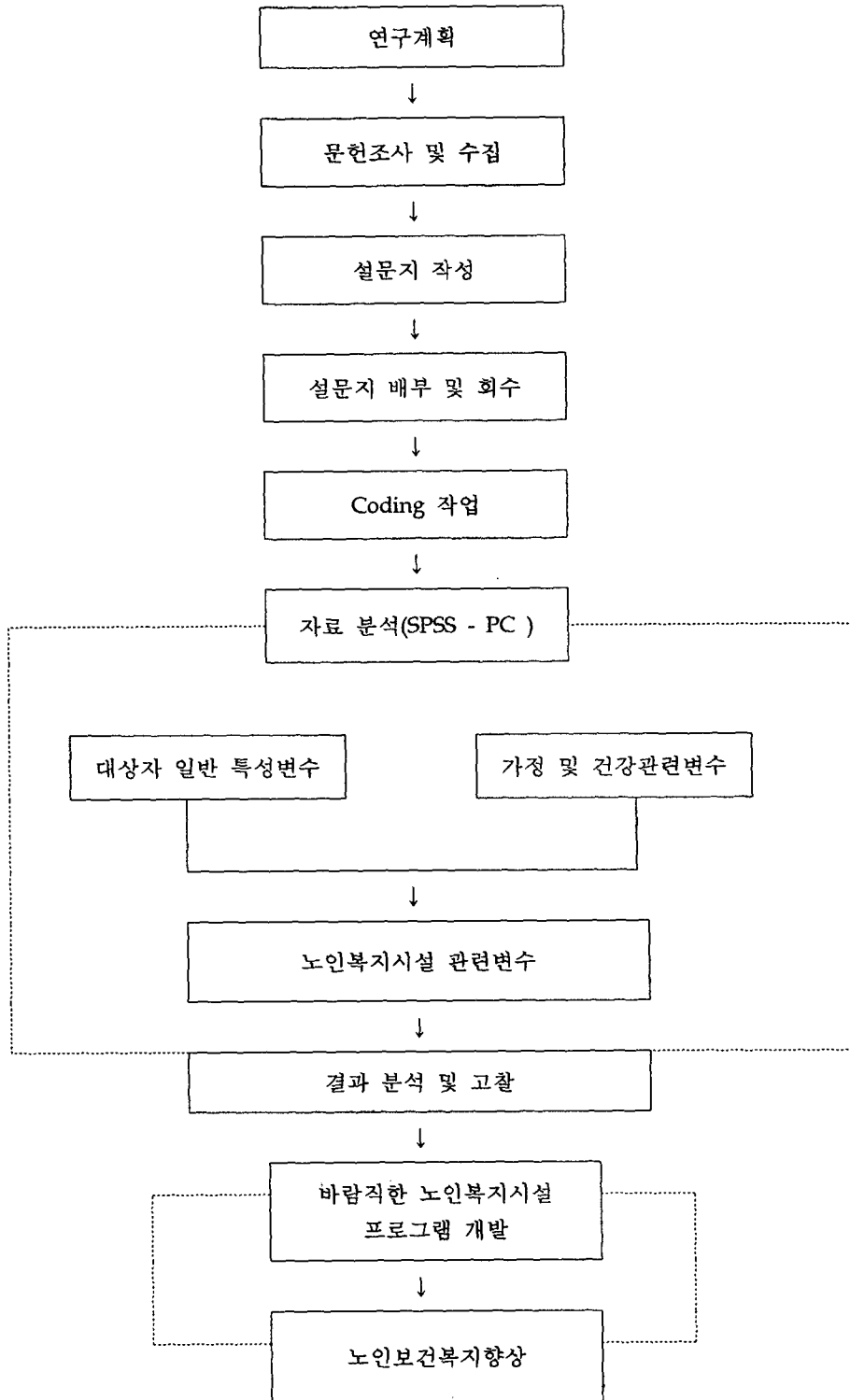
3.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학생의 일반특성변수로 연령, 성별, 종교, 출생지, 장기간 주거지, 현 거주형태, 부모연령, 가족수, 가족수입, 가정경제형편, 조부모와 동거여부, 건강상태, 지난 1개월간 의료기관 이용경험,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강좌 수강경험을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로는 노년에 생활하고 싶은 곳(집), 노년에 살고 싶은 지역, 원하는 노인복지시설,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의견, 타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수준, 노인복지시설과 사업에 투자하는 국가예산에 대한 의견 등을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변수들간의 관련요인도 조사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회수된 자료를 정리하여 잘못 기재되었거나 부실한 설문지는 폐기하고 1,074매(조사대상자 1,200명의 85.1%)를 coding하여 SPSS program에 의거 전산처리후 제표화 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χ^2 -test로 하였다.

5. 연구절차 및 개념적 틀



변수별 점수 배점표

변 수	분 류	점 수
1. 성별	남	0
	여	1
2. 종교	기독교	1
	카톨릭	1
	불 교	1
	없 음	0
	기 타	1
3. 현 거주형태	본 가	0
	자 취	1
	하숙등 기타	1
4. 가족의 전체수입	199만원 이하	3
	200-249만원	4
	250-299만원	5
	300만원 이상	6
5. 현재의 가정경제형편	상	3
	중	2
	하	1
6.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유무	두분 모두 생존	0
	두분중 한분 생존	0
	모두 돌아가심	1
7. 할아버지 할머니와 현 동거여부	예	0
	아니오	1
8.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거여부	예	0
	아니오	1

Ⅲ. 조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성별을 보면 여자가 72.1%로 였고 연령은 20~21세가 40.4%였다. 종교는 없다가 49.1%로 가장 높았고 기독교 27.7%, 불교 15.4%, 카톨릭 7.9%였다. 출생지는 대도시와 농어촌 출신이 양자 공히 40.2%였고 장기간 거주지는 대도시가 49.0%로 가장 높았으며 거주형태는 본가가 58.0%, 자취가 29.7%였다. 학비 제공자는 부모가 89.7%로 대부분이었고 부모 연령을 보면 55세 이상의 경우 아버지는 31.5%, 어머니는 10.9%였다<표 1>.

2. 노년에 생활하고 싶은 거주형태

노년에 생활하고 싶은 거주형태는 단독주택이 72.8%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 또는 빌라가 16.6%, 사회복지 시설은 3.4%로 가장 낮아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불신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표 2-1>.

이를 특성별로 보면 성별에서 남자는 단독주택을, 여자는 아파트 또는 빌라를 각각 77.3%와 18.9%로서 선호가 타군보다 높았다($p<0.05$). 연령별로 보면 단독주택 선호도는 20~21세에서 75.3%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와 빌라는 22~23세에서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 시설은 24세 이상에서 타군보다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종교별로 보면 종교가 기타 및 없다는 학생군에서 단독주택 선호도는 75.9%, 아파트·빌라 선호도는 카톨릭신자에서 24.7%, 사회복지 시설은 불교신자에서 4.2%로 타군보다 높았다($p<0.05$). 출생지역으로 보면 단독주택 선호는 80.3%로 농어촌지역 출생자에서 높았고 아파트 또는 빌라는 대도시지역 출생자에서 23.8%, 사회복지 시설은 농어촌지역에서 출신자가 3.9%로 타군보다 높았다($p<0.001$).

장기간 거주지역별로는 단독주택 선호가 농어촌 거주자에서 82.6%로, 아파트·빌라 선호는 대도시 거주자에서 22.6%, 사회복지시설 선호는 중소도시 거주자에서 4.2%로 타군보다 높았다($p<0.001$). 현 거주형태별로는 단독주택 선호는 하숙 등 기타에서 78.8%, 아파트·빌라는 21.3%, 사회복지시설은 자취하는 자에서 4.4%로 타군보다 높았다($p<0.001$).

현재 가족수로 보면 7명이상 자에서는 단독주택 선호는 79.0%, 아파트·빌라 선호는 5명가족에서 19.2%, 사회복지시설은 7명이상 가족을 가진자에서 7.4%로 타군보다 높았다($p<0.05$)<표 2-1>. 이를 보면 대가족일 경우 단독주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활공간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가족 경우 복지시설 선호율도 타군보다 높았는데 이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의 전체 수입별로 보면 수입이 적을수록 단독주택을 선호하고 수입이 많을수록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은 100만원이하에서 8.4%로 타군보다 월등히 높았다($p<0.01$). 이는 수입이 적으니까 복지시설의존도가 자연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가정경제형편이 나쁜경우 사회복지시설 선호도가 7.5%로 보통의 2.7%보다 유의성있게 높아 아직 경제형편이 보통이나 좋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는 아파트 선호율이 21.5%로 타군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조부모와 동거여부별로 보면 현재 동거하는 경우가 단독주택 선호도는 77.5%, 안하는 경우는 아파트·빌라 선호가 19.2%로 타군보다 높았다.

건강상태별로는 건강이 나쁜편에서 아파트·빌라 선호율이 타군보다 약간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지난 1개월간 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는 단독주택을 약간 더 선호했으며 있는 경우는 아파트·빌라 선호율이 타군보다 약간 높았다. 사회복지시설 선호도는 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있는 자에서 없는 자보다 약간 높아 유의성이 없었다.

보건 및 사회복지관련 강좌를 수강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단독주택 선호율과 사회복지시설 선호율이 각각 타군보다 약간 높았고 있는 경우는 아파트 선호율이 타군보다 높았고 이들의 유의성이 없었다<표 2-2>.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 원 수 (n=1074)	% 100.0
성별		
남	300	27.9
여	774	72.1
연령(세)		
-19	323	30.1
20-21	434	40.4
22-23	167	15.5
24+	150	14.0
종교		
기독교	297	27.7
카톨릭	85	7.9
불교	165	15.4
기타 및 없음	527	49.1
출생지		
대 도시	432	40.2
중소도시	210	19.6
농 어 촌	432	40.2
장기간 거주지역		
대 도시	526	49.0
중소도시	237	22.1
농 어 촌	311	29.0
현 거주형태		
본 가	623	58.0
자 취	319	29.7
하숙등 기타	132	12.3
학비 제공자		
부모님	963	89.7
형제 및 기타	46	4.3
본 인	65	6.1
아버지(연령)		
54 이하	736	68.5
55 이상	338	31.5
어머니(연령)		
54 이하	957	89.1
55 이상	117	10.9

<표 2-1> 노년에 생활하고 싶은 거주형태

단위 : %(명)

구 분	단독주택 72.8(782)	아파트 빌라 16.6(178)	사회복지 시설 3.4(37)	기타 7.2(77)	계 100.0 (1074)
성별					
남	77.3	10.7	3.3	8.7	100.0 (300)
여	71.1	18.9	3.5	6.6	100.0 (774)
	$\chi^2=11.24910$		df=3	p<0.05	
연령(세)					
-19	73.4	17.3	3.1	6.2	100.0 (323)
20-21	75.3	15.9	2.5	6.2	100.0 (434)
22-23	65.3	21.0	3.6	10.2	100.0 (167)
24+	72.7	12.0	6.7	8.7	100.0 (150)
	$\chi^2=15.00776$		df=9	sig=0.0907	
종교					
기독교	71.0	18.9	4.0	6.0	100.0 (297)
카톨릭	67.1	24.7	3.5	4.7	100.0 (85)
불교	69.1	13.9	4.2	12.7	100.0 (165)
기타 및 없음	75.9	14.8	2.8	6.5	100.0 (527)
	$\chi^2=17.41025$		df=9	p<0.05	
출생지					
대도시	65.5	23.8	3.0	7.6	100.0 (432)
중소도시	72.4	18.6	3.3	5.7	100.0 (210)
농어촌	80.3	8.3	3.9	7.4	100.0 (432)
	$\chi^2=39.82916$		df=6	p<0.001	
장기간 거주지역					
대도시	66.9	22.6	3.0	7.4	100.0 (526)
중소도시	73.0	16.0	4.2	6.8	100.0 (237)
농어촌	82.6	6.8	3.5	7.1	100.0 (311)
	$\chi^2=37.16389$		df=6	p<0.001	
현 거주형태					
본가	68.5	21.3	2.9	7.2	100.0 (623)
자취	78.7	10.3	4.4	6.6	100.0 (319)
하숙등 기타	78.8	9.1	3.8	8.3	100.0 (132)
	$\chi^2=26.04957$		df=6	p<0.001	
현재 가족수					
3명 이하	74.0	16.5	0.8	8.7	100.0 (127)
4명	71.7	18.0	2.2	8.1	100.0 (322)
5명	71.3	19.2	3.4	6.2	100.0 (355)
6명	74.1	12.7	5.8	7.4	100.0 (189)
7명 이상	79.0	8.6	7.4	4.9	100.0 (81)
	$\chi^2=20.99025$		df=12	p<0.05	

<표 2-2> 계속(노년에 생활하고 싶은 거주형태)

단위 : %(명)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빌라	사회복지 시설	기타	계
	72.8(782)	16.6(178)	3.4(37)	7.2(77)	100.0 (1074)
가족의 전체 수입					
100만원이하	75.9	10.8	8.4	4.8	100.0 (83)
100-149만원	80.1	11.0	2.8	6.0	100.0 (317)
150-199만원	71.5	18.4	3.6	6.5	100.0 (277)
200-249만원	68.9	22.5	2.0	6.6	100.0 (151)
250만원이상	66.3	19.9	3.3	10.6	100.0 (246)
	$\chi^2=29.98757$		df=12	p<0.01	
현재의 가정경제형편					
보 통	72.9	17.1	2.7	7.3	100.0 (901)
나쁜편	72.3	13.9	7.5	6.4	100.0 (173)
	$\chi^2=11.01813$		df=3	p<0.05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유무					
두분 모두 생존	70.9	21.5	1.3	6.3	100.0 (158)
두분중 한분생존	73.3	16.6	3.2	6.9	100.0 (404)
모두 돌아가심	73.0	15.0	4.3	7.6	100.0 (512)
	$\chi^2= 6.80277$		df=6	sig=0.3395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거여부					
동 거	71.9	17.2	3.4	7.5	100.0 (583)
비동거	73.9	15.9	3.5	6.7	100.0 (491)
	$\chi^2= 0.66809$		df=3	sig=0.8807	
할아버지, 할머니와 현 동거여부					
동 거	77.5	14.8	2.4	5.3	100.0 (169)
비동거	70.6	19.2	3.0	7.2	100.0 (401)
	$\chi^2= 2.89429$		df=3	sig=0.4082	소계 570
건강상태					
매우 좋음	70.0	16.3	4.4	9.4	100.0 (160)
좋음편임	74.8	15.4	3.7	6.1	100.0 (508)
보 통 임	71.2	18.3	2.2	8.4	100.0 (323)
약간나쁨	72.3	18.1	4.8	4.8	100.0 (83)
	$\chi^2= 7.38987$		df=9	sig=0.5966	
지난 1개월간 의료기관 이용경험					
있 다	68.7	19.4	4.0	7.8	100.0 (371)
없 다	75.0	15.1	3.1	6.8	100.0 (703)
	$\chi^2= 4.96029$		df=3	sig=0.1747	
학교에서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관련 강좌 수강경험					
있 다	72.4	16.8	3.1	7.7	100.0 (808)
없 다	74.1	15.8	4.5	5.6	100.0 (266)
	$\chi^2=2.52851$		df=3	sig=0.4702	

3. 노년이 된 후에 살고싶은 지역

노년에 살고싶은 지역은 농촌이 41.6%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25.2%, 위성도시 14.5%, 대도시 11.9%, 어촌 3.0%의 순이었다<표 3-1>.

성별로 보면 남자는 농촌과 위성도시 거주희망이 각각 44.0%, 16.3%로 여자보다 높았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희망은 여자에서 남자보다 높았다($p<0.01$).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농촌거주 희망율이 높았고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희망자는 21세이하 응답자에서 21세 이상자보다 높았다.

출생지별로 보면 농촌출신에서 대도시 보다는 농촌과 중소도시 선호가 유의하게 높았고 ($p<0.001$), 장기간 거주지역도 농어촌 거주자에서 타지역 거주자보다 농촌 선호율이 월등히 높았다($p<0.001$).

가족전체수입별로 보면 100만원 이하자에서 농촌이 60.2%로 월등히 높았고 수입이 증가할수록 농촌 다음으로 중소도시와 위성도시 선호율이 높았다($p<0.001$).

가정형편별로 보면 나쁜편에서 농촌 선호율(52.0%)이 보통(39.6%)보다 높았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하지 않는 경우보다 농촌 선호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소도시 선호는 동거하지 않는 응답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건강상태별, 의료기관 이용경험, 보건학 및 사회복지강좌 수강경험별로는 유의성이 없었다. 환경오염도가 높은 도시보다 조용하고 공기가 좋으며 오염도가 낮은 농촌에 살고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99.7%의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사업의 예산중 재가 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은 12.2%로 시설보호에 소요된 예산인 32.0%보다 낮아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김등, 1995). 따라서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종(예 화원, 고급채소)(김, 임등, 1995)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선호하는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에만 생활한다면 원하는 시설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실버타운 선호가 58.2%로 가장 높았고 유(무)료 노인복지시설이 28.4%, 노인촌이 7.5%였다<표 4-1>.

성별로 보면 실버타운은 여자에서 61.4%로, 노인복지시설은 남자에서 31.0%로, 노인촌도 남자에서 11.0%로 선호도가 여자보다 높았다($P<0.01$). 연령별로 보면 20-21세 군은 실버타운을, 22-23세군은 노인복지시설을, 19세 이하는 노인촌을 타군보다 약간 더 선호하였다.

가족 수와 종교별로는 유의성이 없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출생지역별로는 실버타운 선호도는 대도시 출생자에서 64.6%로 타군보다 높았고 노인복지시설 선호는 농어촌 출신자에서 32.9%로 타군보다 높았다($P<0.01$).

장기간 거주지역별로 보면 실버타운 선호는 대도시지역 거주자에서 62.9%로, 유(무)료 노인복지시설 선호는 농어촌지역 거주자에서 32.8%로 타군보다 높았다($P<0.05$).

본인의 현 거주형태별로 보면 실버타운은 본가 거주자에서 61.6%로, 유(무)료 노인복지시설 선호는 본가, 자취이외 기타 거주자에서 33.3%로 타군보다 높았다($P<0.05$). 가족의 전체수입이 250만원 이상자에서 실버타운 선호가 65.9%로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하자에서는 유(무)료 노인복지시설선호가 33.7%로 타군보다 높았으며 노인촌 선호도는 10.8%로 타군보다 높았다. 즉

<표 3-1> 노년이 된 후에 살고 싶은 지역

단위 : %(명)

구 분	농 촌 41.6(447)	어 촌 3.0(32)	대도시 11.9(128)	중소도시 25.2(271)	위성도시 14.5(156)	기 타 3.7(40)	계 100.0 (1074)
성별							
남	44.0	4.0	8.7	20.7	16.3	6.3	100.0 (300)
여	40.7	2.6	13.2	27.0	13.8	2.7	100.0 (774)
		$\chi^2=17.69836$		df=5	p<0.01		
연령(세)							
-19	39.6	3.1	12.1	26.3	14.9	4.0	100.0 (323)
20-21	40.8	1.8	14.5	26.7	12.9	3.2	100.0 (434)
22-23	43.1	5.4	7.8	22.2	19.2	2.4	100.0 (167)
24+	46.7	3.3	8.7	22.0	13.3	6.0	100.0 (150)
		$\chi^2=21.24813$		df=15	sig=0.1291		
종교							
기독교	46.8	3.7	9.4	26.3	11.1	2.7	100.0 (297)
카톨릭	35.3	2.4	11.8	28.2	20.0	2.4	100.0 (85)
불 교	42.4	1.8	12.7	21.2	17.0	4.8	100.0 (165)
기타 및 없음	39.5	3.0	13.1	25.4	14.8	4.2	100.0 (527)
		$\chi^2=15.44069$		df=15	sig=0.4202		
출생지							
대 도시	28.2	3.2	20.8	23.6	19.7	4.4	100.0 (432)
중소도시	37.6	1.4	8.1	34.3	13.8	4.8	100.0 (210)
농 어 촌	56.9	3.5	4.9	22.5	9.7	2.5	100.0 (432)
		$\chi^2=121.50803$		df=10	p<0.001		
장기간 거주지역							
대 도시	30.2	3.0	20.0	23.4	19.6	3.8	100.0 (526)
중소도시	40.5	1.7	5.5	36.3	11.0	5.1	100.0 (237)
농 어 촌	61.7	3.9	3.2	19.9	8.7	5.6	100.0 (311)
		$\chi^2=141.93746$		df=10	p<0.001		
현 거주형태							
본 가	32.9	3.0	16.2	25.7	18.1	4.0	100.0 (623)
자 취	49.8	3.8	5.6	26.6	10.3	3.8	100.0 (319)
하숙등 기타	62.9	0.8	6.8	19.7	7.6	2.3	100.0 (132)
		$\chi^2=73.41402$		df=10	p<0.001		
현재 가족수							
3명 이하	44.1	3.1	15.0	22.8	12.6	2.4	100.0 (127)
4명	35.7	4.3	12.4	26.4	17.1	4.0	100.0 (322)
5명	40.6	2.3	13.0	26.8	13.5	3.9	100.0 (355)
6명	43.9	2.1	8.5	26.5	14.3	4.8	100.0 (189)
7명 이상	60.5	2.5	8.6	14.8	12.3	1.2	100.0 (81)
		$\chi^2=26.69198$		df=20	sig=0.1442		

<표 3-2> 계속(노년이 된 후에 살고싶은 지역)

단위 : %(명)

구 분	농 촌	어 촌	대도시	중소도시	위성도시	기 타	계
	41.6(447)	3.0(32)	11.9(128)	25.2(271)	14.5(156)	3.7(40)	100.0 (1074)
가족의 전체 수입							
100만원이하	60.2	2.4	8.4	19.3	8.4	1.2	100.0 (83)
100-149만원	47.9	2.5	9.5	27.4	10.1	2.5	100.0 (317)
150-199만원	39.0	1.4	13.4	27.1	16.2	2.9	100.0 (277)
200-249만원	31.1	6.6	10.6	29.1	15.9	6.6	100.0 (151)
250만원이상	36.6	3.3	15.4	19.9	19.5	5.3	100.0 (246)
		$\chi^2=56.30387$		df=20	$p<0.001$		
현재의 가정경제형편							
보 통	39.6	3.1	13.0	25.3	15.5	3.4	100.0 (901)
나쁜편	52.0	2.3	6.4	24.9	9.2	5.2	100.0 (173)
		$\chi^2=16.19267$		df=5	$p<0.01$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유무							
두분 모두 생존	35.4	3.8	12.7	29.1	15.8	3.2	100.0 (158)
두분중 한분생존	43.1	3.0	11.6	24.3	13.4	4.7	100.0 (404)
모두 돌아가심	42.4	2.7	11.9	24.8	15.0	3.1	100.0 (512)
		$\chi^2= 5.73024$		df=10	sig=0.8374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거여부							
동 거	46.1	3.3	11.5	23.7	12.2	3.3	100.0 (583)
비동거	36.3	2.6	12.4	27.1	17.3	4.3	100.0 (491)
		$\chi^2=13.59961$		df=5	$p<0.05$		
할아버지, 할머니와 현 동거여부							
동 거	51.5	4.7	8.3	20.7	10.1	4.7	100.0 (169)
비동거	36.2	2.5	13.5	27.9	16.0	4.0	100.0 (401)
		$\chi^2=16.89386$		df=5	$p<0.01$		소계 570
건강상태							
매우좋음	45.0	1.9	12.5	20.6	16.9	3.1	100.0 (160)
좋음편임	41.5	3.1	11.4	24.0	15.4	4.5	100.0 (508)
보 통 임	39.0	2.5	12.4	29.4	13.3	3.4	100.0 (323)
약간나쁨	45.8	6.0	12.0	25.3	9.6	1.2	100.0 (83)
		$\chi^2=14.04496$		df=15	sig=0.5221		
지난 1개월간 의료기관 이용경험							
있 다	41.2	3.8	14.0	25.1	14.0	1.9	100.0 (371)
없 다	41.8	2.6	10.8	25.3	14.8	4.7	100.0 (703)
		$\chi^2= 8.55880$		df=5	sig=0.1280		
학교에서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관련 강좌 수강경험							
있 다	41.5	3.0	12.3	24.9	15.1	3.3	100.0 (808)
없 다	42.1	3.0	10.9	26.3	12.8	4.9	100.0 (266)
		$\chi^2=2.51472$		df=5	sig=0.7743		

수입이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 살고 있는 대상자일수록 실버타운을 원하고 있었다. 조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대상자에서 실버타운을 선호하는 경우는 60.1%로 타군보다 약간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학교에서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 강좌 수강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없는 자 보다 실버타운 선호율이 약간 높았다.

실버산업을 중산층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수익자부담에 의하여 노후생활에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문현상 등, 1996). 소득수준의 향상과 경제력 있는 노인이 증가함에 유료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갈 것임으로 실버산업의 축진이 예상되며 전망도 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실버산업을 노인주거분야, 재가서비스분야, 보건의료 및 노인복지 용구분야, 금융보험분야, 예가활동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우리문화와 정서에 맞는 실버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의견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의견은 사회보장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50.3%로 과반수를 넘었고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가 42.8%였다<표 5-1,2>.

특성별로 보면 사회보장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는 경우는 24세이상자에서, 여자에서, 농어촌 거주자에서, 경제적으로 낮은 층에서,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관련 강의를 수강한 적이 없는 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종교별로는 사회보장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기독교신자에서 55.6%,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불교신자에서 54.5%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P<0.05$).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것은 취업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60세이상 경제활동 노인인구는 1994년 38.2%(남 53.8%, 여 27.9%)이며, 취업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79.5%, 건강유지 5.2%, 일이 좋아서, 소일거리 4.7%로 나타났다(이가옥 등 1994, 문현상 등 1996, 통계청 1990-95). 정부는 1991년 노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하여 3%이상의 노인(55세 이상)을 고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일본의 11.7%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보화, 세계화 및 노인의 의식구조 변화 등으로 노인의 학습, 교육 및 취업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어 앞으로 노인대학, 노인문화센터 등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취업알선기관(노인능력은행, 노인인재은행, 노인공동작업, 노인취업알선 센터 등)의 확충 그리고 일손돕기, 취로사업 확대등을 포함하여 정부와 사회단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타 개발도상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수준

타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수준을 타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의견은 매우 낮다가 54.5%로 가장 높았고 조금 낮다가 36.2%, 보통이다는 9.3%였다. 복지시설수용이 조금 낮다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표 6-1,2>.

성별로 보면 수준이 낮다는 여자에서 92.2%로 남자보다 유의성있게 높았으며($P<0.05$)이며, 출생지별로는 도시지역 출생자보다 농촌지역 출생자에서 노인복지시설수준이 타국보다 더 낮다고 응답하였다($P<0.05$).

<표 4-1> 선호하는 노인복지시설

구 분	노인복지시설				계
	노인촌	실버타운	유(무)료	기타	
	7.3(78)	58.2(625)	28.4(305)	6.1(66)	100.0 (1074)
성별					
남	11.0	50.0	31.0	8.0	100.0 (300)
여	5.8	61.4	27.4	5.4	100.0 (774)
		$\chi^2=16.13130$	df=3	p<0.01	
연령(세)					
-19	9.6	57.9	24.5	8.0	100.0 (323)
20-21	5.5	60.6	29.5	4.4	100.0 (434)
22-23	7.8	50.9	32.9	8.4	100.0 (167)
24+	6.7	60.0	28.7	4.7	100.0 (150)
		$\chi^2=15.57190$	df=9	sig=0.0764	
종교					
기독교	9.8	53.5	30.6	6.1	100.0 (297)
카톨릭	5.9	67.1	24.7	2.4	100.0 (85)
불 교	5.5	63.0	23.0	8.5	100.0 (165)
기타 및 없음	6.6	57.9	29.4	6.1	100.0 (527)
		$\chi^2=12.99835$	df=9	sig=0.1627	
출생지					
대 도시	4.2	64.6	25.0	6.3	100.0 (432)
중소도시	9.5	57.6	26.2	6.7	100.0 (210)
농 어 촌	9.3	52.1	32.9	5.8	100.0 (432)
		$\chi^2=20.71595$	df=6	p<0.01	
장기간 거주지역					
대 도시	5.7	62.9	25.9	5.5	100.0 (526)
중소도시	9.3	55.7	28.3	6.8	100.0 (237)
농 어 촌	8.4	52.1	32.8	6.8	100.0 (311)
		$\chi^2=12.86716$	df=6	p<0.05	
현 거주형태					
본 가	5.9	61.6	27.1	5.3	100.0 (623)
자 취	10.0	54.9	28.8	6.3	100.0 (319)
하숙등 기타	6.8	50.0	33.3	9.8	100.0 (132)
		$\chi^2=13.49978$	df=6	p<0.05	
아버지(연령)					
54세 이하	6.9	59.8	27.2	6.1	100.0 (736)
55세 이상	8.0	54.7	31.1	6.2	100.0 (338)
		$\chi^2=2.61083$	df=3	sig=0.4556	
어머니(연령)					
54세 이하	7.2	59.0	27.4	6.4	100.0 (957)
55세 이상	7.7	51.3	36.8	4.3	100.0 (117)
		$\chi^2=5.08633$	df=3	sig=0.1656	
현재 가족수					
3명 이하	8.7	59.8	28.3	3.1	100.0 (127)
4명	6.5	59.3	28.3	5.9	100.0 (322)
5명	8.2	55.2	29.6	7.0	100.0 (355)
6명	7.4	59.3	25.9	7.4	100.0 (189)
7명 이상	3.7	61.7	29.6	4.9	100.0 (81)
		$\chi^2= 6.94655$	df=12	sig=0.8611	

<표 4-2> 계속(선호하는 노인복지시설)

단위 : %(명)

구 분	노인촌	실버타운	유(무)료 노인복지시설	기타	계
	7.3(78)	58.2(625)	28.4(305)	6.1(66)	100.0 (1074)
가족의 전체 수입					
100만원이하	10.8	48.2	33.7	7.2	100.0 (83)
100-149만원	8.5	56.5	29.3	5.7	100.0 (317)
150-199만원	6.9	56.3	28.5	8.3	100.0 (277)
200-249만원	5.3	58.3	31.8	4.6	100.0 (151)
250만원이상	6.1	65.9	23.2	4.9	100.0 (246)
	$\chi^2=15.19731$		df=12	sig=0.2308	
현재의 가정경제형편					
보 통	7.2	58.2	28.7	5.9	100.0 (901)
나쁜편	7.5	58.4	26.6	7.5	100.0 (173)
	$\chi^2= 0.88598$		df=3	sig=0.8288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유무					
두분 모두 생존	8.9	60.1	25.9	5.1	100.0 (158)
두분중 한분생존	8.2	57.2	27.5	7.2	100.0 (404)
모두 돌아가심	6.1	58.4	29.9	5.7	100.0 (512)
	$\chi^2= 4.26488$		df=6	sig=0.6409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거여부					
동 거	8.2	59.2	26.8	5.8	100.0 (583)
비동거	6.1	57.0	30.3	6.5	100.0 (491)
	$\chi^2= 3.27834$		df=3	sig=0.5307	
할아버지, 할머니와 현 동거여부					
동 거	9.5	58.0	27.2	5.3	100.0 (169)
비동거	8.0	58.1	26.9	7.0	100.0 (401)
	$\chi^2= 0.81919$		df=3	sig=0.8449	
소계 570					
건강상태					
매우 좋음	8.8	52.5	33.8	5.0	100.0 (160)
좋음편입	6.7	63.0	24.8	5.5	100.0 (508)
보 통 입	7.4	54.2	30.3	8.0	100.0 (323)
약간나쁨	7.2	55.4	32.5	4.8	100.0 (83)
	$\chi^2=12.30269$		df=9	sig=0.1968	
지난 1개월간 의료기관 이용경험					
있 다	6.5	60.6	27.0	5.9	100.0 (371)
없 다	7.7	56.9	29.2	6.3	100.0 (703)
	$\chi^2= 1.53676$		df=3	sig=0.6738	
학교에서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관련 강좌 수강경험					
있 다	6.7	58.9	27.7	6.7	100.0 (808)
없 다	9.0	56.0	30.5	4.5	100.0 (266)
	$\chi^2=3.85706$		df=3	sig=0.2773	

<표 5-1>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음 42.8(460)	사회보장에 의해 보장되어야 함 50.3(540)	기타 6.9(74)	계 100.0 (1074)
성별				
남	43.7	48.0	8.3	100.0 (300)
여	42.5	51.2	6.3	100.0 (774)
		$\chi^2= 1.75647$	df=2	sig=0.4155
연령(세)				
-19	43.3	49.2	7.4	100.0 (323)
20-21	42.9	49.5	7.6	100.0 (434)
22-23	46.1	48.5	5.4	100.0 (167)
24+	38.0	56.7	5.3	100.0 (150)
		$\chi^2= 4.22757$	df=6	sig=0.6459
종교				
기독교	36.7	55.6	7.7	100.0 (297)
카톨릭	37.6	54.1	8.2	100.0 (85)
불 교	54.5	40.0	5.5	100.0 (165)
기타 및 없음	43.5	49.9	6.6	100.0 (527)
		$\chi^2=14.92801$	df=6	p<0.05
출생지				
대 도시	42.4	49.3	8.3	100.0 (432)
중소도시	44.3	50.0	5.7	100.0 (210)
농 어 촌	42.6	51.4	6.0	100.0 (432)
		$\chi^2= 2.52589$	df=4	sig=0.6400

부모의 연령별로 보면 수준이 낮다고 한 경우는 아버지의 연령이 54세 이하에서 92.0%와 55세 이상에서는 87.9%로 각각 높았다(P<0.05). 이는 젊은 부모를 둔 응답자가 노인복지사업에 보다 적극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태별로 보면 중류층에서는 복지시설과 사업수준이 타국보다 조금 낮다는율이 37.7%로 하류층보다 높았고, 매우 낮다는 하류층에서 65.3%로 중류층보다 높았다(P<0.01). 전반적으로 낮다는 율은 하류층에 높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빈곤 개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학교에서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관련 강좌 수강여부와 복지시설 및 사업수준에 있어서는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수준이 낮다고 한 의견은 건강상태가 나쁜 응답자에서 95.1%로서 매우 좋다는 응답자 84.4%보다 훨씬 높았다(P<0.01).

이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노후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에 투입하는 국가예산에 대한 의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예산이 매우 낮다는 응답자는 60.4%였으며 예산수준이 낮다는 전

<표 5-2> 계속(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음 42.8(460)	사회보장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50.3(540)	기 타 6.9(74)	계 100.0 (1074)
현재의 가정경제형편				
보 통	43.6	49.3	7.1	100.0 (901)
나쁜편	38.7	55.5	5.8	100.0 (173)
	$\chi^2 = 2.29300$	df=2	sig=0.3177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유무				
두분 모두 생존	45.6	49.4	5.1	100.0 (158)
두분중 한분생존	39.9	52.2	7.9	100.0 (404)
모두 돌아가심	44.3	49.0	6.6	100.0 (512)
	$\chi^2 = 3.31100$	df=4	sig=0.5027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거여부				
동 거	42.5	50.9	6.5	100.0 (583)
비동거	43.2	49.5	7.3	100.0 (491)
	$\chi^2 = 0.39351$	df=2	sig=0.8214	
학교에서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관련 강좌 수강경험				
있 다	42.8	49.9	7.3	100.0 (808)
없 다	42.9	51.5	5.6	100.0 (266)
	$\chi^2 = 0.90861$	df=2	sig=0.6349	

<표 6-1> 타 개발도상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수준

단위 : %(명)

구 분	보통이다 9.3(100)	조금낮다 36.2(389)	매우낮다 54.5(585)	계 100.0 (1074)
성별				
남	13.3	33.3	53.3	100.0 (300)
여	7.8	37.3	54.9	100.0 (774)
	$\chi^2 = 8.28964$	df=2	p<0.05	
출생지				
대 도시	7.6	35.2	57.2	100.0 (432)
중소도시	6.7	33.8	59.5	100.0 (210)
농 어 촌	12.3	38.4	49.3	100.0 (432)
	$\chi^2 = 11.65836$	df=4	p<0.05	
아버지(연령)				
54세 이하	8.0	38.3	53.7	100.0 (736)
55세 이상	12.1	31.7	56.2	100.0 (338)
	$\chi^2 = 7.32069$	df=2	p<0.05	

<표 6-2> 계속(타 개발도상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수준)

단위 : %(명)

구 분	보통이다 9.3(100)	조금낮다 36.2(389)	매우낮다 54.5(585)	계 100.0 (1074)
가족의 전체 수입				
100만원이하	6.0	33.7	60.2	100.0 (83)
100-149만원	11.0	38.5	50.5	100.0 (317)
150-199만원	6.9	39.7	53.4	100.0 (277)
200-249만원	9.9	31.1	58.9	100.0 (151)
250만원이상	10.6	33.3	56.1	100.0 (246)
	$\chi^2= 9.58815$		df= 8	sig=0.2951
현재의 가정경제형편				
보 통	9.9	37.7	52.4	100.0 (901)
나쁜편	6.4	28.3	65.3	100.0 (173)
	$\chi^2= 9.93637$		df=2	p<0.01
건강상태				
매우 좋음	15.6	28.1	56.3	100.0 (160)
좋음편임	10.0	36.4	53.5	100.0 (508)
보 통 임	6.2	39.6	54.2	100.0 (323)
약간 나쁨	4.9	37.3	57.8	100.0 (83)
	$\chi^2=16.62924$		df=6	p<0.01
학교에서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관련 강좌 수강경험				
있 다	9.0	36.0	55.0	100.0 (808)
없 다	10.2	36.8	53.0	100.0 (266)
	$\chi^2=0.44406$		df=2	sig=0.8009

채율은 92.3%로 응답자 대부분이 낮다고 하였다<표 7-1,2>. 노인복지시설 투자가 매우 낮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은 24세 이상자에서 높았다(P<0.05). 성별, 종교별, 출생지역별의 변수는 노인 복지시설 및 사업투자예산에 대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장기간 거주한 지역별로는 대도시 거주자에서 국가예산수준이 아주 낮다고 한 응답율은 63.4%로 농어촌 거주자의 응답율보다 높았다(P<0.05). 이는 도시 거주자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태수준별로 보면 하류층에서 71.1%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예산이 매우 낮다고 하였다(P<0.01). 이는 건강이 나쁠수록 복지예산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 전체에 책정된 국가예산은 1995년 618억원으로 총 국가예산의 0.12%(1992년 일본은 2.3%)였으며 이중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주간 보호사업, 경로당 운영비, 노인건강진단을 포함한 재가 서비스에 소용되는

예산은 약 7,524,000천원으로 노인복지 총예산의 12.2%로 시설보호 소용예산은 32.0%보다 월등이 낮았다(김수춘 등 1995). 앞으로 정부는 노인복지법을 토대로 재가노인복지사업과 재가의료사업인 가정간호사업 등 시설사업보다 재가사업에 투자를 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현재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중 6.4%~8.3%를 차지하는 치매노인

에 대하여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치매노인은 60세이상 노인인구의 3.4%(14만 5천명)에서 2020년 60세이상 노인인구의 4.0%(39만 7천명)(서미경 외 1996)로 증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7-1>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에 투입하는 우리나라 국가예산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보통이다 7.7(83)	조금났다 31.9(342)	매우났다 60.4(649)	계 100.0 (1074)
성별				
남	8.7	29.7	61.7	100.0 (300)
여	7.4	32.7	59.9	100.0 (774)
	$\chi^2= 1.19963$ df=2		sig=0.5489	
연령(세)				
-19	7.6	33.4	59.0	100.0 (323)
20-21	7.6	33.4	59.0	100.0 (434)
22-23	6.6	31.1	62.3	100.0 (167)
24+	8.3	27.7	64.0	100.0 (150)
	$\chi^2=12.79342$ df=6		p<0.05	
종교				
기독교	8.1	36.0	55.9	100.0 (297)
카톨릭	7.1	29.4	63.5	100.0 (85)
불 교	6.1	27.3	66.7	100.0 (165)
기타 및 없음	8.2	31.3	60.5	100.0 (527)
	$\chi^2= 6.85686$ df=6		sig=0.3343	
출생지				
대 도 시	8.1	31.5	60.4	100.0 (432)
중소도시	4.3	31.0	64.8	100.0 (210)
농 어 촌	9.0	32.6	58.3	100.0 (432)
	$\chi^2= 5.36478$ df=4		sig=0.2519	
장기간 거주지역				
대 도 시	7.2	29.5	63.4	100.0 (526)
중소도시	4.2	32.9	62.9	100.0 (237)
농 어 촌	9.6	35.0	55.3	100.0 (311)
	$\chi^2= 9.49058$ df=4		p<0.05	

8. 60세에 정년퇴임한다면 노후대비 적정비용에 대한 의견

일반적으로 60세 정년퇴임 후 80세까지 20년 더 산다고 가정할 경우 노후대비 적정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조사해본 바 2억 2천만원 이상이 35.2%로 가장 높았고 1억원에서 1억3천9백만원이 25.0%로 다음이었고 1억8천만원에서 2억1천9백만원이 23.1%였다<표 8>.

특성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노후를 대비한 적정비용이 1억4천에서 1억7천9백만 이하라고 한 응

<표 7-2> 계속(노인복지시설 및 사업에 투입하는 우리나라 국가예산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보통이다 7.7(83)	조금났다 29.9(321)	매우났다 62.4(670)	계 100.0 (1074)
현재의 가정경제형편				
보 통	8.2	33.4	58.4	100.0 (901)
나쁜편	5.2	23.7	71.1	100.0 (173)
	$\chi^2 = 9.88286$		df=2	p<0.01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유무				
두분 모두 생존	10.8	33.5	55.7	100.0 (158)
두분중 한분생존	7.4	30.7	61.9	100.0 (404)
모두 돌아가심	7.0	32.2	60.7	100.0 (512)
	$\chi^2 = 3.31826$		df=4	sig=0.5060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거여부				
동 거	6.2	32.1	61.7	100.0 (583)
비동거	9.6	31.6	58.9	100.0 (491)
	$\chi^2 = 4.37057$		df=2	sig=0.1124
건강상태				
매우 좋음	9.3	30.5	60.2	100.0 (160)
좋음편임	8.3	34.4	57.3	100.0 (508)
보 통 임	8.4	30.3	61.6	100.0 (323)
약간나쁨	4.8	29.3	65.9	100.0 (83)
	$\chi^2 = 12.60467$		df=6	p<0.05
학교에서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관련 강좌 수강경험				
있 다	5.3	32.4	62.3	100.0 (808)
없 다	12.0	30.1	58.9	100.0 (266)
	$\chi^2 = 6.12696$		df=2	p<0.05

답율은 가족 전체수입이 낮은 대상자일수록 높았고 2억이상은 가족전체수입이 높은 응답자에서 높았다(P<0.01). 할아버지, 할머니의 생존여부와 동거여부와 자신의 건강상태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9. 실버타운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로지스틱 회귀분석)

실버타운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분석을 한 결과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P<0.01), 현 거주형태(P<0.05), 가족의 전체수입(P<0.05)이다<표 9>.

<표 8> 60세 정년퇴임후 노후대비 적정비용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 분	99이하	100-139	140-179	180-219	220이상	계
	7.4(80)	25.0(268)	9.3(100)	23.1(248)	35.2(378)	100.0 (1074)
가족의 전체 수입						
100만원이하	13.3	30.1	13.3	21.7	21.7	100.0 (83)
100-149만원	7.6	32.8	10.4	18.9	30.3	100.0 (317)
150-199만원	6.5	23.8	9.7	23.1	36.8	100.0 (277)
200-249만원	8.6	18.5	4.6	31.8	36.4	100.0 (151)
250만원이상	5.7	18.3	8.9	23.6	43.5	100.0 (246)
		$\chi^2=45.53642$	df=16		p<0.001	
현재의 가정경제형편						
보 통	7.3	24.8	9.0	23.4	35.5	100.0 (901)
나쁜편	8.1	26.0	11.0	21.4	33.5	100.0 (173)
		$\chi^2= 1.24876$	df=4		sig=0.87001	
할아버지, 할머니 생존유무						
두분 모두 생존	9.5	22.8	6.3	22.2	39.2	100.0 (158)
두분중 한분생존	7.7	24.0	11.6	22.3	34.4	100.0 (404)
모두 돌아가심	6.6	26.4	8.4	24.0	34.6	100.0 (512)
		$\chi^2= 7.75471$	df=8		sig=0.45779	
할아버지, 할머니와 현 동거여부						
동 거	7.7	27.8	8.9	23.7	32.0	100.0 (169)
비동거	8.5	22.4	10.5	21.2	37.4	100.0 (401)
		$\chi^2= 3.13687$	df=4		sig=0.53519	소계 570
건강상태						
매우 좋음	9.4	27.5	11.3	21.3	30.6	100.0 (160)
좋음편임	7.3	25.4	9.1	22.8	35.4	100.0 (508)
보 통 임	7.4	22.6	9.9	25.1	35.0	100.0 (323)
약간나쁨	4.8	26.5	4.8	20.5	43.4	100.0 (83)
		$\chi^2= 9.02675$	df=12		sig=0.70064	
지난 1개월간 의료기관 이용경험						
있 다	6.7	26.7	12.1	21.0	33.4	100.0 (371)
없 다	7.8	24.0	7.8	24.2	36.1	100.0 (703)
		$\chi^2= 7.45453$	df=4		sig=0.11373	

* 단위 : 100 만원

<표 9> 실버타운 선호 로지스틱 회귀분석

Classification	b	S.E	Wald	Sig	Exp(B)
연 령	0.0088	0.0264	0.1105	0.7396	1.0088
성 별	0.4933	0.1508	0.7008	0.0011	1.6376
종 교	-0.0116	0.1262	0.0084	0.9269	0.9885
현 거주형태	-0.2698	0.1347	4.0125	0.0452	0.7635
아버지(연령)	-0.0046	0.0063	0.5469	0.4596	0.9954
어머니(연령)	0.0051	0.0063	0.6627	0.4156	1.0051
현재 가족수	-0.0202	0.0539	0.1407	0.7076	0.9800
가족의 전체수입	1.20E-07	5.918E-08	4.1417	0.0418	1.0000
현재의 가정경제형편	-0.2333	0.1704	1.8748	0.1709	0.7919
할아버지,할머니 생존유무	0.0688	0.1276	0.2910	0.5896	1.0713
할아버지,할머니와 동거여부	-0.1334	0.1309	1.0388	0.3081	0.8751
노후대비 비용액	0.0004	0.0003	1.4166	0.2340	1.0004
Constant	0.2332	0.7764	0.0902	0.7639	
χ^2		26.455			
df		14			
Significance		0.0226			

IV. 요약 및 결론

노령화 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위하여 성장하는 현대의 지식인 청년 연령층의 노인에 대한 의식 변화를 파악하고자 199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3개 중소도시에 있는 전문대 이상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72.1%였고 20~21세가 40.4%였으며 무종교가 49.1%였다. 대도시와 농어촌 출신이 양자 공히 40.2%, 장기간 거주자는 대도시가 49.0%이며 본가 거주가 58.0%, 부모 연령이 55세이상의 경우 아버지는 31.5%, 어머니는 10.9%였다.
2. 노년에 생활하고 싶은 집은 단독주택이 72.8%였고 아파트 및 빌라가 16.6%, 사회복지 시설은 3.4%였다. 단독주택 선호도는 남자에서, 20~21세에서, 농어촌출신자에서, 가족이 7명이상자에서, 건강이 나쁘다는 자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응답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사회복지시설 선호도는 24세이상자에서, 불교신자에서, 중소도시 출신자에서, 자취하는 학생에서,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운 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3. 노년에 살고싶은 지역은 농촌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농촌거주 희망율이 높았고 도시거주 희망은 여자에서, 21세 이하에서 높았다.

4. 선호하는 노인복지시설은 실버타운이 58.2%, 유(무)료 노인복지시설이 28.4%였다. 특성별로는 실버타운이 20~21세군에서, 여자에서, 대도시 출생자에서, 장기간 대도시 거주자에서, 본가 거주자에서, 수입이 많을수록, 조부모 모두 생존해 있는 자에서, 보건학 또는 사회복지 강의를 수강한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5. 노후 생활비 마련은 사회보장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50.3%, 스스로 마련해야한다고 42.8%였다. 사회보장에 의해 보장해야 한다는 경우는 24세이상자에서, 여자에서, 농어촌 거주자에서, 기독교 신자에서, 경제적 형편이 낮은자에서, 지난 1개월간 의료기관 이용 경험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다.
6. 타국과 비교한 한국의 노인복지시설 및 사업수준은 매우 낮다는 의견이 54.5%였다. 특성별로는 여자에서, 농촌지역출신자에서, 본가 거주자에서, 각각 타군보다 높았으며 젊은 부모를 둔 응답자와 건강 상태가 나쁠수록 노인 복지사업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7.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국가 예산이 낮다는 응답율은 92.3%였으며 조사대상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대도시 거주자에서, 경제상태가 낮을수록, 건강이 나쁠수록 높았다.
8. 노후대비 적정비용은 2억2천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율이 35.2%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전체수입이 높을수록 높았다.
9. 실버타운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P<0.01$), 현 거주형태($P<0.05$), 그리고 가족의 전체수입($P<0.05$)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예산을 늘리고 공기 좋은 농촌에 노인복지시설과 실버타운을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에 정부 당국자와 관련단체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노인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모든 학교에서 보건학 강좌를 개설하여 보건복지 관련 내용을 교육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V. 참고 문헌

1. 김문환, 남철현: 한국노인의 보건행태와 관련요인 분석, 한국노년학 17(1), 253-270 1997
2. 김수춘, 임동권, 서미경, 오경석: 고령화 사회를 향한 노인복지의 실천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1995. pp.34-35
3. 김수춘 외: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pp.1-27
4. 김영모: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0
5. 김중서 등: 평생교육의 체제와 사회교육의 실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6. 김진열: 노인성 질환의 추세와 대책: 한국노년학회지, 9, 1990
7. 남철현, 김광호, 이기남, 이선동: 예방의학과 보건학, 계축문화사, 1996. pp. 691-701
8. 문현상, 정우진, 김유경, 김동배: 실버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1995
9. 서미경, 오경석, 오영희: 치매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1996

10. 송성진, 최성재, 이연숙: 노인복지시설을 위한 기초 연구, 현대건설주식회사 기술연구소 용역 과제 보고서, 1995
11. 예민해, 남철현, 황연자: 공중보건학, 제책사, 1996, pp. 400-402
12. 이가옥, 서미경, 고경환, 박중돈: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13. 이영철: 노인복지대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Vol.4, 한국노년학 연구회, 1995
14. 장인혁,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15. 최성재: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1992
1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0, 1985, 1990, 1995
17. 하상락: 가정 및 사회에 있어 노인의 지위 및 권위의 변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2
18. 허정, 이선자: 한국노인의 보건실태조사, 한국노년학회지, 5. 1984
19. Atsuaki, G. "Gray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Health Care System", Seminar on Population Aging, 1993.
20. Gelfand, D.E.(4efs.), The Aging Network: Programs and Service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New Yock, 1993.
21. Kelly, J.R., Majorie, W.S. and Janice R. K. "Later Life Leisure: How They Play in Peoria," The Gerontologist, Vol.33, No.5, 1986, pp.531-537.
22. Krout, J.A., "Senior Center Linkages in the Community', The Gerontologist, Vol.26, No.5, 1986, pp.510-515.
23. Miner, S., John, R.L., Glenna, S., "Predicting the Frequency of Senior Center Attendance", The Gerontologist, Vol.33, No.5, 1993, pp.650-657.